25년만에 다시 가본 일본의 어느 목장

한 우 경
(전) 한국식품연구회 회장, (전) 한국유가공연구회 이사

일본 지바현의 후나바시시는 도쿄도심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보면 불과 20km지점에 위치하는 인구 55만명의 도시이다.

20여년전만 하더라도 농업인구가 5.2%나 되었으나 지금은 급격한 도시화로 불과 1.8%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중 낙농농가수는 1970년에 99호 유우두수 1900여두에서 현재는 27호에 1,100여두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곳을 내가 25년만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라 다소 흥분도 되었으며 이토록 도시화된 이곳에 낙농조합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할 정도로 후나바시시 전면은 완전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곳의 낙농조합장도 내게 설명하기를 이 지역이 도시화 된것에 비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낙농인구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며 이런 주변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조합장의 말을 듣고는 존경심마저 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들어 주택지로 둘러쌓인 풀밭에서는 가축의 분뇨처리와 퇴비의 살포도 마음놓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주택지로부터는 사료밭이나 채소밭에 음료수병 깡통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이곳 낙농은 타지역보다 앞서 있다며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도시화된 환경에서 낙농이 살아남기 위하여 남다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였으리라. 조합장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사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다.

1. 농사와 공존하는 도시만들기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농업 그 자체에 대하여 농민과 비농민과의 관계가 미묘한, 말못할 알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조합장은 말을 한다.

농민쪽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농사일을 하며 살아야하나 하는 것과 농지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처리 등의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이고 반면 비농민측에서는 농약이 바람에 날려오고 농토에서는 흙먼지가 날리며 악취의 발생등 불만이 제기되어 오더란다.

농민측에서 생각할 때 옛날의 순수농촌으로 있을때에는 문제도 되지 않던 일들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좌시 할수만 없다는 판단에서 새로 입주해 온 주민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앙케이트조사를 하였더니 의외로 그들의 답변요지는 ①농지는 푸른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②신선한 농산물을 구할 수 있다는 등 다행히도 주변에서 농업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는 농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도시의 경관 및 환경개선등 농민도 도시속의 일원이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조합이 앞장서서 농민들을 계도

> 후나바시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어 대단위 집단주거시설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 시가지 구역에 접한 낙농농가도 5호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주택지 주민들과 농가 사이에는 공연한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간에 큰 이유도 없는 위화감이 생겼다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다섯농가 중 한집이 목초를 예취하고 난 목초지에서 목장축제를 조합과 협조하여 개최하였다 한다.

하였다는 그의 말이 귀에 남는다.

2. 인근 주민과의 목장축제

후나바시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어 대단위 집단주거시설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 시가지 구역에 접한 낙농농가도 5호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주택지 주민들과 농가 사이에는 공연한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간에 큰 이유도 없는 위화감이 생겼다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다섯농가 중 한집이 목초를 예취하고 난 목초지에서 목장축제를 조합과 협조하여 개최하였다 한다. 이제까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우사와 초지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현장에서 금방 착유한 우유를 무료로 시음시키고 초지용 퇴비를 조금씩 포장하여 주민들 화분에 뿌리도록 선물하는등의 행사를 벌렸더니 가까이서 처음보는 젖소구경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가족끼리 사진찍고, 그림 그리고, 초지에서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년례행사로 목장축제를 열고 있다고 한다.

3. 낙농의 이미지업(Image up)

축산업중에서도 낙농업 즉 젖소목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막연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아름다

운 환경에서 얼룩소가 풀을 뜯으며 푸른 초원에서 생산하는 뽀얀 우유를 생각하는 등 감각적으로 흔히들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하며 TV나 사진, 그림등의 표현도 매우 여유로운 인상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서 일반인들은 낙농업 하면 일반축산과 달리 깨끗하고 여유로운 인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낙농현장은 어떠한가? 우사내에서는 분뇨 냄새나 나고 파리 모기는 들끓고 진흙탕 투성이의 방목운동장과 젖소의 몸통과 유방에는 쇠똥이 말라붙어 있고 거미줄 투성이의 우사등이 낙농업의 현장이라고 가상해보면 과연 도시인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낙농에 대한 좋은 인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런 소에서 짜낸 우유를 영양의 보고를 운운하며 먹어달라고 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런것이 낙농의 모든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까지의 아름다웠던 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것이고 우유는 더럽고 비위생적 이라는 인상으로 그 당장부터 안먹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낙농목장도 주변의 환경위생이 많이 개선되고 청결해지는 등으로 생우유를 그대로 먹을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낙농이란 특히 우유를 소비해주는 고객들에 둘

러쌓인 상태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언제 어떤 상태에서나 우유 소비 고객들이 목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여건임을 감지하고 항시 긴장하여야 할것이라는 조합장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도시낙농에서 넓은 초원을 갖기란 힘들지만 젖소나 우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은 목장경영자의 의지 여하에 달린 것이며 낙농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각자의 의식에 좌우되는 것임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그곳의 한 중학교 옆에 있는 어느 목장은 젖소 80두나 기르는 규모임에도 매일 환경유지에 힘쓴 나머지 그 학교 미술선생이 목장으로 찾아와서 학생들에게 젖소와 목장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싶다는 요구에 계절마다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4. 낙농가의 의식개혁

가족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동네의 구멍가게로 부터 음식점, 세탁소 등등 그러나 이런 직업들은 자신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없이 쉴수가 있으나 낙농이란 이런것이 불가능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매일매일을 정해진 시간에 젖을 짜야하고 냉각시킨 후 출하해야 하고 살아있는 가축이니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놓고 발벗고 쉴 수 없다는 것이 낙농업의 고통인 것이다.

그래서 이곳 조합은 1989년 4월에 낙농헬퍼제도를 도입하여 헬퍼 이용조합을 운영하면서부터 지금은 매달 두번씩 정기적으로 휴일을 즐기고 있다 한다. 남녀 2인 1조의 헬퍼가 오는날에는 그간의 모든 시름을 잊고 여행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재 충전을 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불의의 돌발사태에도 대비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좋아진 것은 낙농헬퍼 제도의 도입 이후로는 젊은2세들이 낙농업도 휴일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때문인지 낙농후계자 육성에 애로가 없어졌고 또 그 후계자의 결혼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다만 헬퍼 이용요금이 농가당 평균으로 년간 약 50만엔의 부담이 있으나 이는 세무상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농가에서는 낭비성비용이 아니냐고 하는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각자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헬퍼를 이용하는 낙농가들은 헬퍼 이용 요금을 낙농경영상의 필수경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한편 낙농헬퍼제도를 확고한 기반위에 직업인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낙농인 모두가 해결 해야 할 큰 일이 아니겠냐면서 그들은 헬퍼에 대하여 신분상으로 사회적인 직업인으로 보호 육성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젖소 자가 인공수정(낙농가)반 교육 안내

유우개량 사업소에서는 '96년도 젖소 자가인공수정(낙농가)반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낙농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목장업을 하는 양축농가 및 자가인공수정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
2. **교육일정** :

기 별	1	2	3	4	5	6	7	8	9	10
교육일자	2/22 -2/27	3/2 -3/6	3/11 -3/16	3/21 -3/26	3/30 -4/4	4/8 -4/13	4/16 -4/21	4/24 -4/29	5/2 -5/7	5/10 -5/15

3. **교육장소** : 축협 유우개량사업소
4. **교육기간** : 각 6일
5. **교육인원** : 매기수 30명×10회=300명
6. **구비서류**
   - 이력서 1통(사진부착)
   - 건강진단서 1통(국·공립 병원, 보건소 발행)
   - 추천서 1통(해당지역 축협조합장 발행)
7. **교육과목**
   - 가축인공수정 이론 및 실습
   - 젖소개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우개량 사업소 ☎ (02) 355-7333으로 연락 바랍니다.